

# 세계유산등록을 둘러싼 한일 재현의 정치\*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박수경\*\*

(e-mail : parksk3000@pusan.ac.kr)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한국의 재현의 정치    |
| 2. 일본의 재현의 정치        | 3.1. 재일조선인이라는 터부 |
| 2.1. 일본: 메이지영광론      | 3.2. 쇼카손주쿠의 누락   |
| 2.2. 나가사키: 하시마의 브랜드화 | 4. 나가며           |

キーワード: 世界遺産(World heritage site), 長崎(Nagasaki), 端島(Hashima), 明治榮光論(Meiji eikoron), 松下村塾(Shoka Sonjyuku),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会(The Meeting for Human Rights Protection for zainichi-chousenjin in Nagasaki)

## 1. 들어가며

2015년 7월 5일, 규슈(九州) 와 야마구치(山口)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8개 현, 11개 시, 23개 시설이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이하,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sup>1)</sup>. 이 유산은 ‘국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7-361-AL0001).”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1) 『연합뉴스』 2015.7.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4/0200000000AKR20150704045900005.H](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4/0200000000AKR20150704045900005.HTML?from=search)  
TML?from=search 검색일:2016.3.29.)

무총리실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에 의하면 5만 이상의 식민지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었으며,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sup>. 특히 이 유산 안에는 나가사키의 하시마(端島) 통칭 군함도(軍艦島)와 다카시마(高島)가 속하는데, 이곳은 식민시기 조선인 4000여명이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한이 서린 자리로<sup>3)</sup> 이곳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것이라는 사실에 한국의 등록 반대가 거세었다.

이에 당시 언론은 의장국인 독일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호소를 받아들여 표결에 부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었으며<sup>4)</sup>, 한일 간의 외교전까지 예상되었다. 7월 4일로 예정되고 있던 발표가 하루 늦추어질 만큼 일본의 세계유산등록은 생각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뒤로 하고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은 세계유산으로 등록, 결정되었다.

본고는 일본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논하고, 또 나가사키라는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가 하시마를 어떻게 재현, 홍보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정부 레벨의 입장표명보다는 방송, 언론매체에서 하시마의 재현으로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하시마의 재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또 메이지일본산업유산에 등록반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비판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 2. 일본의 재현의 정치

### 2.1 일본: 메이지영광론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의 정식명칭에는 메이지라는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2) 강동진 외(2014) 「일본 큐슈-야마구치 일원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토계획』 49-2, 대한·도시계획학회지, p.116.

3) 竹内康人 (2016) 「三菱重工業・三菱鋁業と強制労働-長崎を中心に」 『第9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朝鮮人強制労働と世界遺産問題」』,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p.20.

4) 『연합뉴스』 2015.7.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9/0200000000AKR20150719061300073.HTML?from=search> 검색일:2016.3.30.)

시대가 표상하는 것은 단지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이 어느 시기의 유산군인지 나타냄에 불과한 것일까. 시바타 토시아키(柴田利明)는 역사학자 나가쓰카 아키라(中塚明 1929~ )에 의해 명명된 메이지영광론<sup>5)</sup>(明治榮光論)과 관계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sup>6)</sup>. 메이지영광론이란 메이지시대에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위대한 군인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1849~1912), 도쿄 헤하치로(東郷平八郎 1848~1934)가 존재했으며 일본육해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겼다고 메이지시대를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역사관의 한 종류이다<sup>7)</sup>.

국민작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는 러일전쟁을 소재로 한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1973)으로 2010년 현재까지 1천8백만 부수를 판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그 제명을 풀어보면 언덕이라는 고지를 힘겹게 밟고 올라 저 높은 희망의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러일전쟁의 승리를 빚던 글로 메이지영광론이 잘 나타나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sup>8)</sup>.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덕을 힘겹게 올랐다는 것으로, 사실이 어떠했는가라는 문제를 떠나, 작고 미개한 나라가 문명 거인국을 이긴 기적의 전쟁이라고 재현되고 있으며, 독자는 거기에 열렬히 환호하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sup>9)</sup>. 또 여기에서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은 어쩔 수 없이 대항하였던 조국방위전쟁으로 둔갑한다. 즉 시바 료타로의 말을 인용하면, 러시아가 한반도까지 내려왔다면, 그 위협을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일본은 과연 참고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상황이 와도 참고 견뎌야 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당시는 국민국가가 성립된 지 30여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었다고 피력한다<sup>10)</sup>.

메이지영광론은 일본의 지식인, 역사연구자, 전후보상문제연구자, 소설가, 평론가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적 수준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다음의 아

5) 中塚明(2007) 『現代日本の歴史認識-その目覚めざる欠落を問う』, 高文研, p.189.  
 6) 柴田利明(2016a) 『西坂だより』 80号, NPO法人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p.15.  
 7) 柴田利明(2016a) 위의 글, p.15.  
 8) 김용범(2010) 「“메이지 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왜 지금 <언덕 위의 구름>인가」 『한국논단』 244권, pp.116~117, p.121.  
 9) 김용범(2010) 위의 논문, pp.124~125.  
 10) 김용범(2010) 앞의 논문, pp.126~127 재인용; 司馬遼太郎(1994) 『この国のかたち』 4, 文藝春秋社, p.173.

베 신조(安部晋三) 총리의 전후70년 담화(2015.8.14.)에서도 메이지영광론이 역력히 나타난다.

百年以上前の世界には、西洋諸国を中心とした国々の広大な植民地が、広がっていました。圧倒的な技術優位を背景に、植民地支配の波は、十九世紀、アジアにも押し寄せました。その危機感が、日本にとって、近代化の原動力となっ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アジアで最初に立憲政治を打ち立て、独立を守り抜きました。日露戦争は、植民地支配のもとにあった、多くのアジアやアフリカの人々を勇気づけました。11)

압도적 기술을 가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로 밀려 들어왔는데, 일본은 이 위기를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 정치를 이루고 독립을 유지하였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 다 주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위기를 느꼈으나, 입헌정치를 메이지유신으로 이루어 근대화를 하였고 이는 같은 입장이 될 뻔 한 타(아시아, 아프리카)의 모범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장은 메이지영광론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12) 이를 메이지일본산업혁명유산의 팜플렛(2009)에 실린 개요와 비교해 보자.

19世紀以降に欧米の国々がアジアへ進出しはじめると、植民地化への危機感も増大。防衛のために西洋の科学記述を導入して、軍事力を強化しました。これが近代化のはじまりで、以降も高いモチベーションを維持しながら、近代化を進める日本の先導的な役割を果たします。(中略)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は西洋以外の地域の近代化の先駆けとなった日本の原点を語り継いでいく上で、(略) 13)

11) 백 년 이상 전 세계는 서양 제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식민지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파도는 19세기에 아시아로도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끝까지 다 지켰습니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産経新聞』 2015.8.14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0814/plt1508140016-n1.html> 검색일:2016.4.9.)

12) 柴田利明(2015a) 『人權NEWS』, (2015.10.9. 柴田利明発行), p.1.

13)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2009.8)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非西洋世界における近代化の先駆け～」 (<http://www.kyuyama.jp/index.html>)

위의 인용문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직역을 하면서, 직역에 상당하는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 속의 문구를 ( )에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백 년 전) 구미의 나라들(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아시아(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자(밀려들어), 식민화(식민화)에 대한 위기감(위기감)도 증대. 방어(러일전쟁)를 위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압도적 기술우위)을 도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것이 근대의 시작으로, 이후로도 강한 동기를 유지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선도적 역할을 다합니다.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 산업유산군’은 서양이외의 지역(아시아)의 근대화의 선봉(최초)이 된 일본의 원점을 전해감에 있어서,

세계유산의 개요는 아베의 담화 속 단어와 겹치거나, 의미상 유사성을 가진다. 대상 시기, 해당 시기의 식민화의 주체, 식민화의 대상지, 식민화의 기세, 일본의 해외정세 파악 양상, 대응의 목적, 대응 방법, 세계사 속의 근대화 순서가 같다. 또 근대화의 한 종류로 아베가 말하는 입헌정치를 배치시킨다면, 내용은 더더구나 유사해진다.

또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한 예로 보자면, 메이지 시대는 1868년부터 1912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의 시기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1910년 한일합방으로 행해진 이웃하는 나라의 주권침탈의 책임을 회피하고, 명분상 식민시기 조선인을 배제할 수 있었기에 국제적 논란이 될 만한 한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상기에서 본고는 아베 담화와 메이지일본산업세계유산 팜플렛의 내용은 별다를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 그 근원에는 어쩔 수 없는 침략전쟁이었다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메이지영광론이 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은 메이지라는 시기를 1850년부터 1910년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이후의 시대 즉 쇼와(昭和)와 분리하여 기억, 재현하고자 한다. 쇼와는 어떤 시대였던가. 쇼와는 만주사변(1931)부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웃국가를

검색일: 2012.6.27.)

14)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1360500\\_02.pdf](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1360500_02.pdf) (검색일2016.9.23.)

15) 柴田利明(2016a) 앞의 글, p.15.

침략하고 그 국민을 일본 내로 끌고 들어와 고통을 안긴 시대로 메이지에 비하여 어두운 시대로 각인되어 있으며 영광스럽지 못한 시대이다. 그러나 쇼와는 메이지가 낳은 결과물로 두 시대는 연속적이다. 이에 유네스코(2015.7.5.)는 메이지일본산업유산에 대하여 메이지라는 그 한 단면만이 아니라 쇼와를 포함한 전 시대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후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할지 두고 볼 일이다.

## 2.2 나가사키: 하시마의 브랜드화

하시마가 세간의 이목을 모으게 된 것은 2009년 1월 일본 문화청의 세계유산 잠정일람표에 기재<sup>16)</sup>되면서 부터이다. 1970년대에 일본 산업고고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산업유산에 급속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994년 문화재보호기획특별위원회가 근대화 산업의 시급한 조사와 보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sup>17)</sup>, 2년 후 1996년 그 결과가 정리되면서 문화재등록제도에 기반한 「등록유형문화재」가 생겨난다. 같은 시기에 문화청의 지도로 각 현에서 근대화유산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현과 지역 단위로 일반인을 겨냥한 서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5년경으로, 그 시작이 『군함도의 유산-풍화하는 근대 일본의 상징(軍艦島の遺産-風化する近代日本の象徴)』(2005) <sup>18)</sup>이다<sup>19)</sup>. 그런데 매스컴과 지자체에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은 오히려 지역의 시민단체로 하시마의 경우 2003년 NPO로 인정받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모임」(「軍艦島を世界遺産にする会」)이 존재한다. 하시마 출신으로 조선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사카모토 토토쿠(坂本道徳)가 주축이 되어 1974년 폐광되어 무인도가 된 하시마를 관광자원으로서 주목한다<sup>20)</sup>. 이후 2006년 경제

16) 내각관방 산업유산(内閣官房産業遺産)의 세계유산등록추진실(世界遺産登録推進室)이 2015년 5월 4일 명기로 이코모스의 심의결과를 보도자료로 내었다.

(<http://www.kyuyama.jp/action/icomos.pdf> 검색일:2016.4.6.)

17) 幸田亮一(2006) 「熊本・九州産業遺産をめぐる動向と課題」 『熊本学園大学付属産業経営研究所』 25, 熊本学園大学付属産業経営研究所, p.1 재인용; 東京国立文化財研究所 (1999) 「時代の変化に対応して文化財保護施策の改善充実について」, p.13.

18) 後藤恵之輔他 (2005) 『軍艦島の遺産-風化する近代日本の象徴』, 長崎新聞社, pp.1~152.

19) 幸田亮一(2006) 앞의 논문, p.2.

20) 幸田亮一(2006) 앞의 논문, pp.2-3.

산업성이 하시마 뿐만이 아니라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정책으로 세계유산화에 관여하기 시작하여<sup>21)</sup> 2009년 문화청의 세계유산 잠정일람표에 기재, 2014년 1월에 유네스코로 추천서 제출, 2014년 9월~10월에 이코모스의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2015년 5월 4일 이코모스의 기재권고<sup>22)</sup>, 마지막으로 2015년 7월 5일 세계유산등록으로 결정 난다.

미쓰비시머티리얼 소유였던 하시마는 2001년 관리비의 부담으로 현재 나가사키시 소속 다카시마초(高島町)에 무상으로 양도된다. 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 소유였던 만큼 식민지 조선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기억은 물론하고, 해저 탄광이었기에 일본인에게도 하시마는 가혹하였다<sup>23)</sup>.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강제동원, 연행되어 굶주림과 구타 속에서 차별받으며 혹사당한 기억이 남아 있으며<sup>24)</sup>, 주민으로 거주하던 일본인으로서는 그저 허물어지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길 바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sup>25)</sup>, 좁은 공간에서 너나 할 것 없는 한 가족으로 생활했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의 대상이기도 하였다<sup>26)</sup>. 이러한 기억들 속에서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고통의 기억이라 할 것인데, 나가사키는 하시마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하시마 관광수입창출을 위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

2009년 후지텔레비전 개국 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며, 2010년 제33회 일본아카데미상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한 <방치된 섬(ホッタラケの島)>의 배급처 동보(東宝)와 나가사키시가 두 섬을 자매섬으로 맺었다. <방치된 섬>은 필요 없어진 보물로 이루어진 섬으로 폐광된 하시마의 이미지와 겹친다는 면에 착목한 결과이다<sup>27)</sup>. 일본 유명 락 그룹 비즈(B'z)의 2009년 싱글곡<MY LONE

21) 柴田利明(2016a) 앞의 글, p.15.

22) 내각장방 산업유산(内閣官房産業遺産)의 세계유산등록추진실(世界遺産登録推進室)이 2015년 5월 4일 명기로 이코모스의 심의결과를 보도자료로 내었다.

(<http://www.kyuyama.jp/action/icomos.pdf> 검색일:2016.4.6.)

23) 柴田利明(2015b) 『人権NEWS』, (2015.12.2. 柴田利明発行), p.2 재인용; 上野英伸(1960) 『追われてゆく坑夫たち』, 岩波新書, p.241.

24)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2009)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パンフレット』, p.15.

25) 木村至聖(2010) 「『軍艦島』をめぐるヘリテージ・ツーリズムの現状と課題」 『社会情報』 19(20), 札幌学院大学総合研究所, p.230.

26) 柴田弘捷(2010) 「『記憶』の無人島・軍艦島-廃鉱の島・長崎県端島-」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 566-567,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 p.68.

27) 『西日本新聞』 朝刊 2009.8.18

LY TOWN>의 뮤직비디오와 앨범 자켓에는 하시마가 등장하는데, 나가사키시의 허락으로 촬영 가능하였으며, 노래와 영상이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28)</sup>. 관민연계의 새로운 관광전략으로 이오지마(伊王島)의 리조트 호텔과 하시마를 연결한 크루즈 주유(周遊)플랜을 내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sup>29)</sup> 이때의 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가사키현이나 나가사키시가 될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기사로는 007시리즈 50주년을 맞이한 기념작 <007 스카이폴(007 スカイフォール)>(2012)에는 하시마가 적의 아지트로 등장하는데, 이는 나가사키현의 지원을 얻어 촬영 가능하였다<sup>30)</sup>.

나가사키시가 하시마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는 2009년에 있었던 다음의 한 시민의 질문과 답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시마에서 어떤 아티스트의 촬영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시민은 일반인이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항의 섞인 글을 나가사키시 시민게시판에 기재하였다. 그 답변은 하시마는 세계유산 잠정리스트에 들어간 역사적 가치 있는 중요한 산업유산인 동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자원이기도 한데, 하시마의 선전효과가 높고, 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특별히 허가하였다고 고한다<sup>31)</sup>.

나가사키는 여느 시와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로 하시마로 관광진흥을 꾀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이루고자 함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관광화 자체가 아니라, 하시마를 알릴에 있어서, 부(負)의 역사가 은폐된 채로 위대한 유산이라는 편향적인 방향으로 몰고 감에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2009년 ‘규슈·야마구치 근대화산업유산군의 세계유산등록’에 관여하는 전문가위원의 인터뷰에 그대로 투사되어 나타난다. 전문가 위원들은 다카시마 탄광,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흔적,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역사자료관을 시찰하였음을 고하는데, 특히 유네스코 관련기관 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의 스튜어트 스미스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28) <http://www.barks.jp/news/?id=1000052580> (검색일2013.4.5)

29) 『長崎新聞』 2010.6.10

30) 『読売新聞』 2012.11.1.

<http://www.yomiuri.co.jp/entertainment/news2/20121101-OYT8T00958.htm>  
(검색일2013.4.5)

31) 文化観光総務課 2009년9월10일 답변 :

[https://www1.city.nagasaki.nagasaki.jp/teian/200904\\_09koukaiweb.html](https://www1.city.nagasaki.nagasaki.jp/teian/200904_09koukaiweb.html)  
(검색일2013.4.5.)

인터뷰를 남긴다. “일본 근대산업발상의 땅. 일본이 어떻게 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급속이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는지, 세계 사람에게 전해야할 이야기가 있다고 평가하였다<sup>32)</sup>.” 그리고 이들은 이틀 후 하시마를 방문하는데, 위의 동인물은 “이런 작은 섬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흥분된다”고 압도당한 표정으로 말하였다<sup>33)</sup>. 세계유산으로서 하시마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이들조차도 일본의 근대화 시기, 다른 말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미쓰비시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무지하며, 미쓰비시의 탄광섬 하시마에 대해서는 그 어두운 역사를 뒤로 하고, 오히려 그 극적인 상황을 낭만적으로 극찬하고 있다.

하시마는 세계유산등록으로 2015년까지의 통계로 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였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하시마 섬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매축공사 때 생긴 돌로 만든 폭이 1미터가 안 되는 제방보강시설 축벽이 이번 메이지일본산업유산군의 시설이다<sup>34)</sup>. 이 사실은 나가사키시의 세계유산책임자가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21회(2015.10.30.) 때 방송이 되었는데, 나가사키시를 기자와 동행하여 취재하며, 하시마를 소개한 시바타 토시아키(柴田利明 2016a) 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너무 틀리다고 판단하면 별개이지만, 관광업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지도할 수 없다. 군함섬 전체로서 세계유산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관광객들은 축벽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시마의 특이한 실루엣과 내부경관이 신기하고 더더구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기에 보러오는 것이다.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가 찍힌 차별화된 관광지를 찾아온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책임자는 축벽과 특이한 실루엣은 그다지 다르지 않으니 관광업자를 지도할 수 없다고 한다.

32) 『西日本新聞』 朝刊 2009.4.26

33) 『西日本新聞』 朝刊 2009.4.28

34) JTBC<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21회 (2015.10.30.)

35) 柴田利明(2016a) 앞의 글, p.16.

36) 이코모스의 세계유산등록 권고가 있던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도 같은 시기와 대비하여 6만 4천명이 많은 17만 9천명이 하시마를 상륙했다. 『長崎新聞』 (2015.12.22.)

일본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유네스코, ICOMOS에 세계유산등록시설에 관하여 어떤 교육 등을 할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방침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 정부의 견해에 따라서는 세계유산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나가사키시는 나라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군함도 등의 시설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된다<sup>37)</sup>.

시의 책임자는 정부의 견해에 따라 세계유산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등록 장소가 어디인지 정부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책임을 중앙정부에 미루고 있다. 또,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징용이라는 것은 일본인에게도 있었고, 그 때는 조선인도 일본인이었다. 강제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모두가 강제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인도 그러하다. 강제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한 것인가? 군함도에 오는 사람들은 관광하러 오기 때문에, 조선인의 어두운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는다<sup>38)</sup>.

당시는 조선인도 일본인이었다는 말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과 상태에 잘못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말로, 아베 신조의 진후 70년 담화와 다를 바 없다. 연합군과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당시 교전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토였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sup>39)</sup>. 또 하시마에 오는 사람들은 관광을 위해 오기 때문에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개인의 의견으로 다크투어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야기이며<sup>40)</sup>, 메이지영광론을 토대로 한 선입견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메이지일본을 보려면, 축벽만을 보아야 할 것으로, 그 특이한 경관을 이루는 아파트는 보아서 안 된다. 그것은 하시마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30호동조차도 1916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메이지 이후의 것을 보면서 그것이 메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역사 왜곡과 날조를 목표로 하는 재현의 정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37) 柴田利明(2016a) 앞의 글, p.16.

38) 柴田利明(2016a) 앞의 글, p.16.

39) 이영채(2015) 「아베담화의 분석과 전쟁법안 처리 이후의 일본 시민운동의 전망」 『코리아연구단 현안진단』 278호, p.4.

40) 2016년 1월 21일 동경에서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사전답사로 일본인 중학교 교사가 하시마를 방문하였다.

### 3. 한국의 재현의 정치

하시마에 대한 한국의 기억의 정치는 정부보다는 언론매체에 의해 행해지는 데, 한국의 방송에서 하시마는 어떤 식으로 재현되고 있을까. 한국의 방송에서 하시마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선 MBC <신기한 TV 서프라이즈>(2009.10.18. 386회)는 세계유산등록으로 한국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2009년 ‘유령섬’이라는 타이틀로 하시마를 거론한다. 그 방식은 음침하며, 기괴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섬, 하시마섬”에서 징용된 억울한 한국인의 원혼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극적(劇的)으로 재현된다. MBC <무한도전>(2015.9.12.)은 세계유산으로 7월에 등록된 하시마가 서서히 잊혀질 9월에 방송되어 하시마를 국민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낸다. 그러나 아쉽게도 1935년부터 1947년까지의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1965년경 일본인의 생활상이나 오락사진을 <사진1>과 같이 자막을 넣어서 방송에서 내보냈다. 이 사진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군함도자료관(軍艦島資料館)<sup>41)</sup>이 쇼와40년대(1965년대)로 전시하고 있는 사진이기도 하다<sup>42)</sup>.



<사진1>

한국은 식민지 조선인의 생활상을 최대한 대비시킬 것을 목표로 <사진1>을 선택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잘못된 재현으로 역사적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수 없음은 한일관계사를 논구함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동할 뿐이다.

#### 3.1 재일조선인이라는 터부

KBS<역사스페셜>('지옥의 땅, 군함섬' 2010.8.7.)은 2010년이라는 비교적 이

41) 박수경·조관연(2013)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 61, 일본어문학회, p.526.

42) 군함도자료관 현지답사 2016.1.28.

른 시기에 하시마를 일본의 양심적이면서 진보적 시민단체를 통하여 강제동원의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는 대외 관계자 인터뷰를 주로 대표인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實)와 시바타 토시아키(柴田利明)가 담당을 하는데 해당 시민단체의 이름과 소속직명이 아닌, 각각 ‘나가사키 명예교수’와 ‘향토사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란 시민운동가, 시의원, 나가사키 충혼비 위험 소송자인 오카 마사하루(岡正治 1918~1994)<sup>43)</sup>를 중심으로 1965년에 구성된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会 이하, ‘지키는 모임’) 또는 이들이 같이 소속하고 있는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岡正治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이하, 오카자료관)’이다. 전자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의 무책임감의 소치로 여겨 한일기본조약에 반기를 들고 나섰으며 가장 차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이라는 ‘부호’를 짊어진 자들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이들의 활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소위 ‘하시마 자료’(端島資料)의 발굴이다.

‘하시마 자료’란 1925년부터 1945년까지 21년간 하시마에서 사망한 일본인을 비롯한 조선인, 중국인 모두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화장인허가증으로 사인(死因)까지 기록되어 일본인 대비 조선인, 중국인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이 단체는 그 양상을 분석하여 『원폭과 조선인』 4집(『原爆と朝鮮人』 4집 1986)으로 출판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세상에 밝혔다. 현재 해산된 상태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가 2012년 발행한 ‘사망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호적이나 제적등본까지 첨부한 과학적이며 정확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는데<sup>44)</sup>, 이 보고서는 『원폭과 조선인』 4집을 근간으로 펼쳐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자는 오카마사하루가 1994년 사망한 후, 그의 유지를 계승하여 설립된 자료관으로 전자가 발굴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sup>45)</sup>.

하시마의 세계유산등록을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낼 때, 전자와 후자 중 어느

43) 朴修鏡(2016) 「平和都市としての長崎構築のための岡正治の実践(1)-『原爆と朝鮮人(1982~1991)と長崎忠魂碑(1982)を中心に-」 『日本学報』 106, 韓国日本学会, pp.33~49.

44) 柴田利明(2016b) 『西坂だより』 81号, NPO法人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p.6.

45) 현지 답사 2016.2.8.

단체를 굳이 선택해서 방송에 내보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하시마 자료’를 발굴한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두 단체의 명칭은 어떤 TV방송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사진2>

<사진2>의 KBS<역사저널 그날>(2015.6.28.)에서 상기의 책이 등장하고 왼쪽 하단에 ‘나가사키 제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명칭이 나오긴 하나 아주 작은 글씨로 명칭이 나와 일반시청자가 인식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의아한 것은 방송의 제명이 ‘군함도의 두 얼굴, 숨겨진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모임’이나 ‘오카자료관’이 아닌 ‘쥬세이 탄광 수몰참사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의 공동대표가 녹화당시의 실시간 연결 화면으로 등장한다. JTBC<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2015.10.30.)는 ‘지키는 모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두 사람을 ‘평화자료관 이사장’과 ‘향토사학자’로 자막 처리한다.



<사진3>

‘지키는 모임’의 명칭이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은 인터넷 언론방송인 <뉴스타파>(2015.8.15.)에서로 시바타 토시아키는 ‘나가사키 제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사무국장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sup>46)</sup>. <뉴스타파>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점이 상기의 언론매체들과 가장 다른 점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키는 모

46) [https://www.youtube.com/watch?v=N1L9X\\_I7-Do](https://www.youtube.com/watch?v=N1L9X_I7-Do)(검색일:2016.4.11.)

임'은 그 명칭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본고는 그 이유를 '지키는 모임'의 정식명칭 속에 재일조선인 특히 '조선'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에서 일본 거주 Korean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 자이니치,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이 중,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명칭은 1948년 8월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거주 Korean을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르며, 수립 이후에는 한국계는 재일한국인이라고 부르며, 북한계는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호명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되는 호명법이다. 조선이라는 호칭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북조선,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총련에 포섭되었던 이름이기 때문에<sup>47)</sup> 재일조선인이라면 북한계로 인식되기 쉽다.

1947년 5월 GHQ는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하여 재일조선인을 관리하는데, 재일조선인은 한반도에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국적이 아닌 '조선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던 역사적 경위를 가진다<sup>48)</sup>. 그 후, 1965년 한일 회담 결과, 일본은 한국과 국교를 맺고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 때까지 '조선적'으로 있던 자들이 '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조선적'인 사람들은 '한국적'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조선적'을 유지하든지 하게 되었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자들은 북한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자가 있기도 하고, 저항의 의미를 담아 식민지의 표상으로 자신을 스스로 '조선적'에 묶어두기도 하고, 반미라는 정치적 이유를 갖기도 하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그들을 일괄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조선적'을 선택한 것인 마냥 바라보기 일쑤였다.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색깔론은 마녀사냥에 유용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북한계 Korean과 어떠한 고리를 가진 이적(利敵) 단체로 오해받아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쉬워 '지키는 모임'의 정식명칭은 공식적 성향이

47) 조관자(2012) 「재일조선인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1945-1960」 『일본사상』 22, 한국일본사상사학회, p.196.

48) 조관자(2012) 위의 논문, p.194.

강한 TV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자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MBC<무한도전>이 세계유산등록 발표 2개월이 지난 9월에 하시마를 거론하면서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으로 같이 등록된 다카시마 (高島) 의 공양탑을 찾아가는데, 이곳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배달의 무도라고 하여 공양탑에 그들이 그렇게 굶주림에 허덕이며 애타게 찾던 밥과 고깃국을 배달하고 목념을 올리는데, 바로 그들이 선 자리는 사실 공양탑의 옛터자리(<사진4>의 점선)로 무덤을 밟고 올라선 모양이 된다.



<사진4 >



<사진5>49)

<사진4>가 현재의 사진이고, <사진5>가 과거의 사진이다. 1974년 하시마가 폐광되자 ‘하시마 자료’에 이름이 올라있는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사망한 조선인 유골 122기는 다카시마에 있던 무연고 납골당인 공양탑에 같이 납골되었다. 그 후, 1988년 다카시마 탄광이 폐광될 때 미쓰비시는 납골당을 파괴하여 유골을 조금씩 나누어서 각각 작은 항아리에 담아 근처의 사절 긴쇼지(金松寺)에 맡겼는데 그 유골의 명부는 다 지워져 무명인 상태로 누구의 유골인지 구분할 수 없다.

<사진4>와 <사진5>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각도로 찍은 사진인데, 이 때 비문을 기준으로 보아 <사진5>의 공양탑은 서향이었으나 <사진4>에서 보듯이 비문은 북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기대(基台)도 바뀌고 비석의 자리도 뒤로 물러났다. <사진4>에서 보면 ‘지키는 모임’의 시바타 토시아키<sup>50)</su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지하 납골당 입구이며, 그 앞 네모지게 움푹 들어간 자리가 원래 <사진5>의 자리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리인 <사진4>에서 죽은 자에 대한 목

49) 시바타 토시아키씨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http://michibe.pupu.jp/> (검색일2016.6.30.)

50) 그는 다카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는데, 서로의 담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하납골당의 납골단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놀았다고 한다.

념을 올리기 위해, 서게 되는 자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지하납골당을 밟고 올라서서 묵념을 하는 셈이 된다. 1988년 유골을 긴쇼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남은 유골들은 그 자리에서 흩뿌려지기도 했는데, 한국인 유족들이 지하납골당에 아직도 명부가 붙은 납골단지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지하납골당의 공개를 요구하나 이는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로 미쓰비시는 지하납골당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인터뷰와 현지답사 2016.3.7.)

본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묵념하는 자리가 무덤 위에 올라선 자리라는 것이 잘못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무덤 위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었던 한일 연대의 부실함으로 인한 정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지키는 모임’을 통하여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지 충분히 알아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하시마나 다카시마를 1984년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탐색해온 한 단체 소속의 두 명의 전문가를 방송매체는 아무런 연관 없는 개인 두 명으로 소개하거나 제일조선인이라는 금기에 휘말려 ‘지키는 모임’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였다. 어떤 하나의 재현의 부실함은 다른 하나의 재현을 부실하게 만든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 3.2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의 누락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의 명칭에는 메이지영광론이 재현되어 있음을 제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어떤 한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편성하였다. 그곳은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칙령 사상의 원류로 드는 하기(萩 현 야마구치(山口))에 있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57~1892)<sup>51)</sup>이 운영하던 사설교육기관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이다. 요시다쇼인은 일본에서는 마치 프랑스의 잔다르크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안보법을 2015년 3월 29일 시행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자로, 아베 총리와 같은 야마구치(山口) 출신이다. 다음은 요시다 쇼인의 글로, 근대 일본의 칙령 사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51) 高實康稔(2016) 「長崎と朝鮮人強制連行-調査研究の成果と課題」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87,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p.13.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필자주: 미국)가 우리 신주의 토지를 탐하고, 우리 신주의 재화를 노린[利]다면 그 화가 장차 러시아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신주의 남쪽, 오스트렐리아[濠斯多辣利]는 천도(天度, 위도)의 중간지대로 초목이 무성하고 인민이 번성하여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 다투는 곳이 되었다. 지금 영국[英夷]이 개척하고 있지만 10분의 1에 불과하니, 우리가 이를 먼저 얻는다면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중략) 神州의 서북에는 조선과 만주가 이어져 있는데, 조선은 옛날 우리에게 臣屬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먼저 그 風教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이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sup>52)</sup>.

이태진(2014)은 요시다 쇼인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서 위기 극복의 길을 다른 나라, 인용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를 영국과 경쟁하여 빼앗으려 하는 침략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위의 인용문은 조선에 관해서는 옛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루었는데 그 시대로 복귀하자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는 뜨면 지고, 달은 차면 비고, 나라는 융성하였다가 바뀌게(替)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보전하려면 오로지 가진 것을 잃지 않게 해야 할뿐더러 없던 것을 (차지하여) 늘려야 한다.

지금 서둘러 武備를 닦고, 함선 계획[艦略]을 세우고 총포 계획[礮略]을 충분히 하면, 곧 하이[蝦夷]를 개척[開墾]하여 諸侯를 封建하고, 기회를 봐서 캄차카, 오즈크를 탈취하고, 류큐를 타일러(諭) 조근회동(朝覲會同)하게 하여 內諸侯와 나란히(比)하고, 朝鮮을 꾸짖어(責) 인질을 보내오고[納質] 조공을 바치게[奉貢]하여 옛 盛時와 같게 하고, 북쪽 만주의 땅을 빼앗고(割,) 남은 대만, 필리핀[呂宋]의 여러 섬을 거두어, 점진적으로 진취의 세를 보여야 한다<sup>53)</sup>.

52) 이태진(201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基底)-」 『한국사론』 60서울대국사학과 p.558 재인용(재인용은 후기한 문헌을 이태진(2014)이 요약, 번역한 것임) ; 山口縣教育會 (1940) 『吉田松蔭全集』 第1卷, 岩波書店, pp.347-350.

53) 이태진(2014) 위의 논문, p.559 재인용(후기한 문헌을 이태진(2014)이 번역한 것임) ; 山口縣教育會 (1940) 『吉田松蔭全集』 第1卷, 岩波書店, pp.347-350, 吉野誠(2002) 『明治維新と征韓論-吉田松蔭から西郷隆盛』, 明石書店, pp.56-57.

위의 인용문에서도 홋카이도, 러시아의 캄차카와 오츠크, 오키나와 등을 대상으로 침략 사상이 설해지고 있으며 또다시 조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옛날 일본이 번성하였을 때처럼 조선에게 인질과 조공을 바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태근(2014)에 의하면 정한론(征韓論)과 관계가 깊다.

유네스코에 제출한 메이지일본산업유산 제안서는 미공개이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가 어떠한 근거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위키피디아에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이에 대한 소개에서 이곳 쇼카손주쿠는 막말부터 메이지유신에 걸쳐 일본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공헌한 인재를 배출한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인재로는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가. 高杉晋作, 山県有朋, 前原一誠, 久坂玄瑞, 品川弥二郎, 佐野常民(의료관계), 高松凌(의료관계)<sup>54</sup>, 木戸孝允, 井上馨, 桂太郎, 寺内正毅<sup>55</sup>. 이들은 크게 무인 또는 정치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가인 경우 중앙 정부로 진출하게 된다. 이태진(2014)에 의하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였는데, 가장 흔한 예로 든다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가 그의 문하생으로, 그의 가르침대로 그는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 되었다<sup>56</sup>.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위키피디아<sup>57</sup>가 소개하듯이, 메이지일본산업유산은 일본의 근대화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화보다 지위가 낮은 산업혁명유산에 담고 있다. 정식명칭은 모든 산업도 아니고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에 제한, 국한된 것이다. 이러한 명칭과 요시다 쇼인의 문하생은 도대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조선(造船)과 석탄산업으로 미쓰비시를 창립한 岩崎弥太郎(1835~1885)와 같은 인물을 발굴하여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메이지일본산업유산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일 것이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시다 쇼인의 문

54) 이진상(2006)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데키주쿠(適塾)와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2, 대한어어일문학회, p.189, 191, 194.

55) 이태진(2014) 앞의 논문, p.552; 요시다쇼인이 지도활동을 한 것은 불과 2년에 불과하며 숙생의 수도 92명으로 적었다. 이진상(2006) 위의 논문, p.189.

56) 이태진(2014) 앞의 논문, p.559.

57) 위키피디아는 집단 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뽑혀지고 있다. 주형일(2012) 「집단지성과 지적 해방에 대한 고찰- 디지털 미디어는 집단지성을 만드는가?」 『열린정신인문학연구』 13-2, p.10, 주재훈 외(2012) 「집단지성의 품질요인과 유용성에 대한 비교연구: 수용자 관점에서 한국의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지식iN」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영정보학회, p.1.

학생들은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물들이기에 설득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라는 명칭은 왜곡된 재현으로 쇼카손주쿠를 함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왜곡된 재현의 주체는 아베정권이라고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번 세계유산등록에 있어서 하시마나 여타의 어느 것보다 가장 비판받아야 할 것은 쇼카손주쿠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근대 일본의 침략 사상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등록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심각한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쇼카손주쿠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연예인 송중기가 영화 <군함도>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있던 2016년 1월 15일 이전인, 2015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를 검색기로 사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검색어 ‘하시마’로는 132건이 검색되는데, ‘쇼카손주쿠’로는 9건이 검색된다. 언론은 압도적으로 하시마에 주목하고, 심각한 비판의 대상인 쇼카손주쿠는 거의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http://www.chosun.com)를 검색기로 하여 같은 시기(2015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 현재)를 같은 검색어 ‘하시마’와 ‘쇼카손주쿠’로 검색을 하면, 각각 63건, 5건으로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 하시마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다음의 2015년 7월 7일자 연합뉴스를 살펴보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쇼카손주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sup>58)</sup>.

하시마와 쇼카손주쿠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고 이를 쟁 되는 시점의 인터뷰

58) 『연합뉴스』 2015.7.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148500043.HTM L?from=search (검색일2016.3.30.)

로 외교부는 쇼카손주쿠에 대해서 언급하길 회피하고 있다. 신문매체뿐만 아니라, TV방송에서도 쇼카손주쿠를 다루었다는 소식을 아직 접한 바 없다.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면 안중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인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상당한 시청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TV나 신문매체는 쇼카손주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자제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일까.

#### 4. 나가며

메이지일본산업유산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고 현재시점으로 15개월이 지났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록된 세계유산에 대하여 메이지라는 60년의 기간만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은 그 이행 상황을 2017년 1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어쩌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위안부 문제를 소녀상 철거라는 조건을 걸고 사과하는 일본이기에 그 역사를 성실히 공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일본의 태도를 더욱 미덥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2015년 기준 유네스코 분담금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7억 엔을 일본이 지원한 바 있고,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sup>59)</sup>. 유네스코는 일본의 존재에 부담을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의 유네스코 분담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겠다고 나왔다<sup>60)</sup>.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반기(反旗)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쇼카손주쿠가 비판의 대상에서 간과되기는 작년 5월이나 지금 현재 시점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달라진 것은 하시마 자료를 발굴한 ‘지키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건립한 ‘오카마사하루

59) 『OBS NEWS』 2015.10.14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362> 검색일:2016.3.30.)

60) 『한국일보』 2015.10.13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d90f11d73b574026923868b327a20052](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d90f11d73b574026923868b327a20052) 검색일:2016.3.30.)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에는 한일영자 팜플렛과 한국어가 나오는 리시버가 설치되고<sup>61)</sup>, 다카시마의 공양탑은 무성하던 풀이 10미터정도 풀베기를 해주어 입구가 보일 뿐이다. 그나마 달아놓은 노란 리본은 아쉽게도 하나둘 흩어져 원래 놓여 있던 녹슨 쇠파이프가 다시 공양탑 가는 길의 길잡이로 돌아가고 있다<sup>62)</sup>. 올해 여름에는 영화 <군함도>에 송중기가 주연으로 나온다니 하시마에 대한 관심은 다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 바탕의 소동이 끝나고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고통의 기억을 발굴하고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나마 법률적 제도가 보장하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는 해체된 채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하시마는 금후로도 한국에서는 뒷짐 지고 쳐다보는 강제동원의 비극의 땅, 일본으로서는 메이지일본의 영광스런 땅, 그리고 나가사키로서는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세계유산이라는 보증수표를 단 브랜드화된 관광지로 소비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서로의 실익에 맞게 따로 따로 기억되고, 재현될 것임이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 【참고문헌】

『연합뉴스』 (2015.6.22.) 『연합뉴스』 (2015.7.5.) 『연합뉴스』 (2015.7.6.) 『연합뉴스』 (2015.7.7.) 『연합뉴스』 (2015.7.19.) 『한국일보』 (2015.10.13.) 『産経新聞』 (2015.8.14.) 『週刊ポスト』 (2015.1.30.일호) 『長崎新聞』 (2010.6.10.) 『長崎新聞』 (2015.12.22.) 『西日本新聞』 (朝刊 2009.4.26.) 『西日本新聞』 (朝刊 2009.4.28.) 『西日本新聞』 (朝刊 2009.8.18.) 『毎日新聞』 (2015.5.5.) 『読売新聞』 (2012.11.1.) 『読売新聞』 (2015.6.21.)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2009.8)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非西洋世界における近代化の先駆け～」 (<http://www.kyuyama.jp/index.html> 검색일: 2012.6.27.)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世界遺産登録推進協議会(2009.10.22.) 「九州・山口の近代化産業遺産群」: <http://www.kyuyama.jp/action/teigensyoJ.pdf> (검색일2012.2.27.)

内閣官房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2013.9.20.)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九州・山口と関連地域」の概要について」: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yuushikisya/inf0130920.html> (검색일2016.4.7.)

内閣官房産業遺産世界遺産登録推進室(2015.5.4.) <http://www.kyuyama.jp/action/icomos.pdf> (검색일2016.4.6.)

61)현지답사 2016.2.27

62)현지답사 2016.3.7

- 강동진 외(2014) 「일본 큐슈-야마구치 일원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토계획』 49-2, 대한·도시계획학회지, p.116.  
(<https://dx.doi.org/10.17208/jkpa.2014.04.49.2.115>)
- 김용범(2010) 「“메이지 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왜 지금 <언택 위키>인가」 『한국논단』 244권, pp.116-117, p.121, pp.124-127.
- 박수경·조관연(2013)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 61, 일본어문학회, p.526.
- 이건상(2006)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테키주쿠(適塾)와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2, 대한일어일문학회, p.189, 191, 194.
- 이영채(2015) 「아베담화의 분석과 전쟁법안 처리 이후의 일본 시민운동의 전망」 『코리아연구단 현안진단』 278호, p.4.
- 이태진(201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基底)-」 『한국사론』 60, 서울대국사학과, p.552, pp.558-559.
- 조관자(2012) 「재일조선인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1945-1960」 『일본사상』 22, 한국일본사상학회, p.194, 196.
- 주형일(2012) 「집단지성과 지적 해방에 대한 고찰- 디지털 미디어는 집단지성을 만드는가?」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3-2, p.10.
- 주재훈 외(2012) 「집단지성의 품질요인과 유용성에 대한 비교 연구 : 수용자 관점에서 한국의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지식iN」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영정보학회, p.1.
- 上野英伸 (1960) 『追われてゆく坑夫たち』, 岩波新書, p.241.
-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2009)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パンフレット』, p.15.
- 木村至聖(2010) 「「軍艦島」をめぐるヘリテージ・ツーリズムの現状と課題」 『社会情報』 19(20), 札幌学院大学総合研究所, p.320.
- 後藤恵之輔他 (2005) 『軍艦島の遺産-風化する近代日本の象徴』, 長崎新聞社, pp.1~152.
- 幸田亮一(2006) 「熊本・九州産業遺産をめぐる動向と課題」 『熊本学園大学付属産業経営研究所』 25, 熊本学園大学付属産業経営研究所, pp.2-3.
- 柴田利明(2015a) 『人権NEWS』 (2015.10.9. 柴田発行), pp.1-2.
- \_\_\_\_\_ (2015b) 『人権NEWS』 (2015.12.2. 柴田発行), pp.1-2.
- \_\_\_\_\_ (2016a) 『西坂だより』 80号, NPO法人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pp.15-16.
- \_\_\_\_\_ (2016b) 『西坂だより』 81号, NPO法人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p.6.
- 柴田弘捷(2010) 「「記憶」の無人島・軍艦島-廃鉱の島・長崎県端島-」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 566-567,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 p.68.
- 司馬遼太郎(1994) 『この国のかたち』 4, 文藝春秋社, p.173.
- 高實康稔(2016) 「長崎と朝鮮人強制連行-調査研究の成果と課題」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87,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p.13.
- 竹内康人 (2016) 「三菱重工業・三菱鉱業と強制労働-長崎を中心に」 『第9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朝鮮人強制労働と世界遺産問題」』,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p.20.
- 東京国立文化財研究所 (1999) 「時代の変化に対応して文化財保護施策の改善充実について」, p.13.
- 中塚明(2007) 『現代日本の歴史認識-その目覚めざる欠落を問う』, 高文研, p.189.

山口縣教育會 (1940) 『吉田松蔭全集』 第1卷, 岩波書店, pp.347-350.

吉野誠(2002) 『明治維新と征韓論-吉田松蔭から西郷隆隆』, 明石書店, pp.56-57.

朴修鏡(2016) 「平和都市としての長崎構築のための岡正治の実践(1): 『原爆と朝鮮人(1982~1991)と長崎忠魂碑(1982)を中心に-』 『日本学報』 106, 韓国日本学会, pp.33-49.

논문 투고 일자 : 2016.12.20
논문 심사 일자 : 2017. 01. 21.
게재 확정 일자 : 2017. 01. 22.

＜要旨＞

世界遺産登録を巡った韓日の再現の政治  
-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を中心に-

朴修鏡

2015年7月日本はユネスコに「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を世界遺産として登録する結果を導いた。しかし、この遺産は5万人以上の植民地朝鮮人が強制動員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と同時に特に長崎の端島には4000人以上が強制連行されていて韓国人の登録反対が厳しかったところである。本稿はまず日本という国家的なレベルで遺産が持つ意味を探索した。その結果、日本は安部の戦後70年談話に現れる「明治栄光論」が世界遺産登録趣旨文に繰り返し現れることがわかった。長崎という地域レベルでは端島を中心に地域の経済活性化を目標に端島を広報していたが、世界遺産というタイトルは他の地域と区別される弁別点としてこの上ないブランド化戦略ということができた。韓国人は端島で死亡した朝鮮人の遺骨が葬られた高島の供養塔を訪ね始めるが、アイロニカルにも彼らが立ったその追悼の場所は地下納骨堂に遺骨が移される過程で一部の遺骨が棄てられた場所であってまるでお墓の上に立って死者を追悼する矛盾を生むことにな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The Politics of Representaion Between Korea and Japan Around World  
Heritage Site  
-Focused on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Park, Su-Kyung

Hashima, Nagasaki is an island where Koreans were forced to work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island is a World Heritage Site under the name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1850-1910) with the truth fading into the back. This study reflects on how hashima was chosen as a World Heritage, what meaning Japan is trying to enforce on it, and how the local reaction in Nagasaki ha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declaration.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opposition to declation hashima a heritage site from Korea. As a result, I find that Abe’s 70-years discourse, the “Meiji Glory Theory” was frequently in the intent of becoming a World Heritage site and his role model, Yoshida Shoin’s Shoka Sonjyuku was chosen as part of the heritage site.